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 4파전 막 올랐다

강숙영 “전국 첫 ‘5-4-3 학제’ 개편”
김대중 “학생 생애 책임 교육 실현”
이정선 “전남광주 교육 상향 평준화”
장관호 “학생 맞춤 진로교육원 설립”
리스크 대처·부동층 흡수 최대 관건

6·3 지방선거 초대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 4파 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가나다 순)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320만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첫 여성교육감 타이틀을 노리는 강숙영 후보와 재

선에 도전하는 김대중·이정선 후보,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장관호 후보가 나선 가운데 서로 다른 교육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김 후보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도박 의혹과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감사관 동창 채용 직권남용 재판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장 후보는 진보교육감 집권 시 ‘기초 학력 저하’라는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각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 대처와 부동층 흡수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출신인 강숙영 후보

는 ▲전남광주형 5일 돌봄학교 운영 ▲전국 최초 ‘5-4-3 학제’ 개편 ▲전남광주형 EBS 설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위원회 신설 ▲독립형 통합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기회와 대동세상의 시작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서 비롯된다”며 “학교 안팎 어디서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실현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 전남도교육감인 김대중 후보는 문순태 전 순천대 부총장과 광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국장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세를 확장했다.

김 후보는 ▲학생생애 책임교육 ▲동부권역

교육청사 신설 ▲1조5천억원 규모 ‘인재양성 장학기금’ 조성 ▲광주권역 교육지원청 추가 신설 ▲통합 200교실 구축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AI·에너지 교육밸리를 조성하고 초·중·고·대학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전남광주특별시를 500만 메가 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 광주시교육감인 이정선 후보는 고등교육 포대학과 교수,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3차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전남·광주 교육 수준 상향 평준화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통합교육감 지역인재 추천 전형 신설 ▲초·중·고 전 학년 대상 꿈드림 교육수당 지원 ▲전남광주 진학 책임제 등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교육감 임기 동안 다져온 실력과 효능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특별시가 대

한국 교육의 표준이 되고 아시아의 교육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관호 후보는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단일화를 거쳐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공천위원회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전교조 출신으로 민주·진보계열 단일대오 형성에 성공한 장 후보는 ▲‘첫 단추’ 교육 ▲K-특별시 기본교육수당 ▲청소년 씨앗보림 ▲교육주체 공동정부 ▲학생맞춤형 진로교육원 등 ‘성적 넘어 성장까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 후보는 “한 명만 일등인 한방향 교육에서 모두가 일등인 300도 교육, 모두가 빛나는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보름여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 관리와 얼마나 많은 부동층을 흡수하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욱 기자

오늘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광주·전남 소득하위 70% 15~25만원 연매출 30억 이하·주유소 사용 가능

광주시·전남도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 전남도민은 경우 일반 지역(비수도권)은 1인당 15만원,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 지역에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광주시민들은 네이바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대상여부와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2차 지급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탄력적 요일제 운영,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 지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전통시장 등 현장 중심으로 신속 사용을 유도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인문투어 ‘소년의 길’ 재개

광주시는 17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지를 따라 걷는 인문투어 프로그램 ‘소년의 길’을 오는 12월까지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년의 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발자취가 담긴 역사적 현장을 걸으며 한강 작가의 문학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투어 프로그램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과 실제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연결해 문학과 역사, 도시공간이 어우러진 광주형 인문관광 콘텐츠로 운영한다.

투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있는 전일빌딩245에서 시작해 상무관, 시계탑,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 옛 적십자병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으로 이어진다. /변은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열린 ‘전남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지사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힘 모아달라”

전남도, 제46주년 5·18 기념식 개최

전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김영록관 앞 광장(옛 전남도청 현관 앞)에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황성환 전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원일·문금주·서미하·전종택 국회의원, 양관석 전남 5·18 기념행사위원장, 오월

단체 관계자, 학생,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1980년 당시 광주와 운명을 함께했던 전남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김 지사는 “1980년 5월 전남도민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만행에 분노해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광주의 5월은 곧 전남의 5월이었고, 우리 모두의 5월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결실

을 맺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도 표했다. 김 지사는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가 국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됐다”며 “5·18이 한낱 정쟁의 도구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역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오점이 누구 이름 위에 남을 것인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오월 정신을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하는 일에 도민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5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바 당 회사에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 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주식회사 건강나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3
청산인 이정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룸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임음)식당,사옥,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평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교환]
상가모텔 주택땅 교환합니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